

Japan Weekly Digest

2012. 6. 02 ~ 2012. 6. 08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소비세 증세·TPP 등 현안 타개를 위한 2차 개각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환경·자원·부흥 분야가 설비투자 견인
- 불공정무역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대응방침
- 일본 중견기업들의 기술, 중국에서 각광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대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소비세 증세·TPP 등 현안 타개를 위한 2차 개각

□ 야권과 공조에 주안점을 둔 개각

- 노다 총리가 제 2차 개각을 단행, 5명의 각료를 교체
 - 신임 국토교통상에 하타 유이치로(羽田雄一郎)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, 법무상에 다키 마고토(滝実) 법무성 부대신, 농림수산상에 군지 아키라(郡司彰) 전 농림수산성 부대신, 금융상 겸 우정개혁상에 마쓰시타 다다히로(松下忠洋) 부총청 부대신, 방위상에 모리모토 사토시(森本敏) 다쿠쇼쿠(拓殖)대학 대학원 교수 등을 기용
- 이번 개각은 자민당 등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각료들을 교체, 노다 내각이 추진 중인 소비세 인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공조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됨
 - 자민당 등 야권은 현 노다 내각이 추진 중인 소비세 인상안의 국회 심의를 조건으로 일부 각료에 대한 교체를 요구해 옴
 - 전임 다나카 방위상과 마에다 국토교통상은 자질 시비로 야권으로부터 참의원에서 문책 결의를 받았으며, 오가와 법무상은 국회에서 휴대전화로 경마 사이트를 봐 비난을 받아옴

□ 소비세 증세법안의 향방

- 최대 현안인 소비세증세법안에 대해 노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을 자민당과 협의에 최우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
- 자민당 등 야당과 15일까지 수정된 법안내용을 확정하여 이번 정기국회 마감일인 21일에 중의원 표결에 붙일 예정
- 주된 협의내용으로는 10%의 세율인상 방법과 사회보장 분야 등에 관한 것으로 자민당은 일단 소비세율을 2단계로 나누어 최종 10% 인상하는 정부방침을 수용하는 한편,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저소득자대책으로 급부포함세액공제에는 반대할 방침임

□ 통상정책 : TPP 문제

- 새로운 내각에서도 통상정책의 타개가 큰 과제임. 소비세 증세와 더불어 중요 현안인 TPP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상이 국내 조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, 신임 농림수산상은 농협출신으로 TPP에 신중파임
- 군지 농림상은 민주당과 국민신당의 「TPP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임」에서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, TPP 반대파 의원임
- 입각 직후 기자회견에서 계속적인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TPP참가 결정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밝힘
- 노다 총리는 작년 APEC회의에서 「교섭참가」를 표명하지 않고 「관계국과의 사전협의를 들어가겠다.」고 하는 표현에 그친 것도, 군지 아키라 신임 농림수산상과 마찬가지로 TPP교섭참가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전임 농림수산상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함
- 향후 TPP문제는 노다 총리의 구심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신임 농림수산상의 경력을 비추어 볼 때, TPP 추진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내 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, 신임 농림수산상에게 TPP추진을 위한 명확한 지시를 내릴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환경·자원·부흥 분야가 설비투자 견인

- 2012년 일본경제신문사의 설비투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자동차분야의 설비투자는 신흥국에 대한 투자와 에코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2011년 실적대비 30%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임
- 해외투자 확대에 더하여 환경 대응, 자원, 지진복구 관련 투자가 설비투자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음
- 자원 관련 대기업들이 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, 소매유통 관련 기업들은 지진복구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북지역에 입점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도 투자증가에 기여 요인
- 설비투자의 대내외 비율 면에서는, 해외비율이 38.6%로 2009년 20%~25%를 바닥으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
 - 이는 엔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, 앞으로 세계경제의 감속우려가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
- 한편, 경제산업성이 5일 발표한 2011년도 모노즈쿠리백서에 의하면, 조사대상 대기업의 32%가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환류보다는 해외재투자에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응답
- 이는 과거 해외투자이익을 재투자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다고 한, 응답비율 16%의 2배나 높은 수준인데, 일본에서 유망한 투자대상이 적은데다, 중국 등 진출상대국의 송금 규제 등이 그 배경인 것으로 분석
- 또한 해외 설비투자와 국내고용의 관계에 대해서는, 향후 5년간 해외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 중 46%가 국내고용을 줄일 전망인데 비하여 국내고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3.2%에 그침
- 종래에는 증감비율이 반대였음. 즉, 해외에 투자하여 현지공장을 건설하면 그곳에 공급하는 부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국내 고용도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고 이것이 공동화를 어느정도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왔음
-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통하여 해외투자가 국내 종업원이나 투자에 마이너스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강하다는 점에 대해 백서에서 지적하고 있음
- 한편, 해외에 공장건설 시 국내고용 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종업원 수를 줄이지는 않더라도 배치전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68%, 임금 인하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32.9%에 달함

□ 불공정무역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대응방침

- 경제산업성은 4일 주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통상정책을 지적한 「2012년 불공정무역백서」를 발표. 중국정부의 반덤핑 관세 등 16개 국가·지역을 대상으로 한 146개 사례에 대하여 국제적인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.
 - 중국 : 34건, ASEAN : 26건, 미국 : 38건, EU : 15건, 기타 : 33건
- 보고서에서 일본산 고성능 스테레스강관은 중국에서 경합상대가 없는데도 중국이 반덤핑관세를 걸고 있는 점 등 다음 8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새롭게 지적
 - 중국 : 일본산 감광지에 대한 반덤핑조치, 일본산 스테인레스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
 - 말레이시아 : 저작권침해 DVD의 유통문제
 - 미국 : 외국구좌 조세복종(tax compliance)법(FACTA)
 - 인도 : 태양광 관련기기에 관한 로컬콘텐츠 요구
 - 브라질 : 공산품의 관세인상,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규제
 - 멕시코 : 에너지 표시규제
- 경제산업성은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할 사항을 선정하고, 아울러 당해 사항에 관한 대응상황 및 성과를 공표(업계 및 동일한 관심을 가진 외국정부와의 연대도 촉진)
- 2012년 우선 대응사항은 13건으로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
 - 2국간·다국간 협의 및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(7건)
 - 이미 WTO분쟁해결절차에 요청(2건)
 - WTO권고의 조기이행을 요청(4건)

<한국관련 사항>

① 관세

- 고관세율 자체는 양허세율을 상회하지 않는 한, WTO협정상 문제는 없으나, 자유무역촉진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는, 가능한 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

② 지적재산

- WTO TRIPS(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)협정의 이행기간보다 조기에 지적재산 제도를 정비한 점 등은 높이 평가되나,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일본기업의 25.5%가 한국에서 제조, 경유, 판매소비 등의 면에서 피해를 받고 있어, 중국 다음으로 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- 향후 지적재산의 보호 및 TRIPS 협정의 이행 확보 관점에서, 업계·권리자 등 제도이용자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가일층 정보제공을 촉진하면서 운용해나갈 필요가 있음

□ 일본 중견기업들의 기술, 중국에서 각광

- 지하수 정화, 대기오염물질 측정, 폐유 처리 등 환경관련 틈새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일본 중견기업들이 대중국 사업 확대
- 이는 일본에서는 수요가 없는 기술도, 물 부족이나 심각해진 환경오염 문제로 중국에서는 고수익 기술이 되고 있으며, 전기, 플랜트 관련 대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설비 분야 중국진출로 중견기업들에게도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있음
- 나가오카(수처리장치) : 상하수도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 심양수무집단과 합작하여 중국에서 공장 가동(자본금 3억엔)
- 대화화학공업(공장폐액 등의 처리장치 제조) : 중국 환경계측회사와 합작기업 설립, 자본금 약 1440만엔 중 45%를 대화화학이 출자
- 동아오일공업소(자동차 엔진오일을 회수·재생) : 중국심양에 플랜트 건설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가와사키중공업	2012.6.2	이륜차	중국	자본제휴/현지이륜차생산대기업과 합작, 제조판매
스즈키	2012.6.3	자동차	인도	직접투자/연산 55만대 자동차생산공장 건설, 투자규모 560억엔
후지필름	2012.6.4	인쇄용 쇠판 재료 등	터키	직접투자/판매 대리점 필마트를 매수(20억엔~30억엔)
타무라제작소	2012.6.4	변압기	브라질	직접투자/51%출자, 2개 공장매수
도요다철공	2012.6.5	금형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금형개발제조 자회사 설립, 투자규모 약 12억엔
카오	2012.6.6	화학	중국	직접투자/계면활성제 생산공장 건설, 투자규모 약 50억엔
야쿠르트	2012.6.7	식료품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야쿠르트공장의 생산능력 증강투자, 투자규모 약 40억엔
스미토모상사	2012.6.7	발전설비	탄자니아	화력발전소 수주(설계, 기기조달, 건설, 인재육성 등 일괄제공), 수주규모 300억엔~400억엔
코코카라파인	2012.6.8	제약	베트남/인도차이나파마슈티컬즈케미스트리	업무판매제휴/의약품 및 일용품 판매점 개설
히타치메디코	2012.6.8	의료생활용품	이집트	직접투자/판매점 개설
일본전산	2012.6.8	HDD용 정밀 소형모터	싱가포르	직접투자/연구개발거점 설립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2012년판 모노즈쿠리백서』 경제산업성, 6월6일

*출처: <http://www.meti.go.jp/report/whitepaper/mono/2012/index.html>

(2) 『2012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』 경제산업성, 6월6일

*출처: 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4532/2012_houkoku01.html

(3) 『인구감소와 외국인노동자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6월6일

*출처: <http://www.dir.co.jp/publicity/column/120605.html>

(4) 『기업의 성장과 외부연대』 21세기정책연구소, 6월7일

*출처: <http://www.21ppi.org/pocket/data/vol25/index.html>